

연변 기업인들, 우수기업 교류로 고품질 발전 공유



企业探访 <延边泛西方塑料有限公司>

延边大学经营者课程校友会—7届会长团及各期会长

일전 연변대학 경영자과정총동문회 7기 회장단 및 각 기(届) 회장단은 '경영인들 우수한 기업에서 고품질 발전 배우자'는 취지로 기업인 조광훈 씨가 운영하는 연변범서방플라스틱유한회사와 아담한 조선족 전통가옥이 자리잡은 '강녕마을'을 방문해 기업 경영 학습시간을 가졌다.

기업인 조광훈씨가 설립한 이 회사는 해내외에서 인정받는 랑질의 플라스틱 봉투를 생산하고 있다.

2002년 7월에 설립된 회사는 길림성 도문시 경제개발구에 위치해있는데 총 투자액이 3억 3,000만원에 달하고 건축면적이 7,800평방미터이며 120여명의 회사원들이 현대화한 생산설비를 리용하여 일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 경영인들은 정규화한 생산라인에서 섬없이 쏟아져나오는, 전문 쓰레기를 담는 플라스틱 봉투 제품을 료해하고 좌담회를 통해 고품질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노하우를 배웠다.

1986년 31살의 혈기 왕성한 젊은 나이로 도문시민족비닐공장 공장장직을 맡은 조광훈은 당시 리윤액 10만원의 집체소유제기업을 10여년의 임직 기간 공장 총 자산이 1억 5,000만원, 생산액 1억원, 산하에 15개 계열사를 둔 기업으로 발달을시켰다.

그리하여 도문시민족비닐공장은 당시 국가급 선진기업소, 길림성의 유일한 국가 경공업부 중점골간기업소로

부상했다. 조광훈씨도 길림성로력모범, 전국 민족기업 우수기업가 등 많은 영예를 수여받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중한합자 도문내쇼날플라스틱유한회사를 인입하고 총경리직을 맡아 회사를 일약 길림성과 전국의 외상투자 우수기업으로 일떠세웠고 2000년 사업의 수요로 이 회사를 떠나면서 1,000만원의 개인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도문내쇼날플라스틱유한회사 전체 종업원들에게 공동 주식으로 양도해 훈훈한 화제를 모았다.



연변범서방플라스틱유한회사 조광훈 총경리(좌 1)의 설명을 듣고 있는 경영인들

90년대 중기에는 한국의 설비, 한국의 기술, 한국의 랑질 원료로 다기능 농업용 비닐박막을 생산하는 연변제비펄름유한회사를 인입하고 총경리직을 맡아 5년 만에 1억원의 생산액을 올렸다.

연변범서방플라스틱유한회사는 현재 해내외 일류의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고 직원을 근본으로 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며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품질, 서비스, 기업의 가치'를 슬로건으로 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

조광훈 총경리는 회사의 지난 20여년간의 발전에 대해 "지금까지 해내외 고객들의 신임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비결은 평소 직원을 가족처럼 따뜻이 대하고 고객에 대한 신용을 생명처럼 간주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광훈 총경리는 "회사는 평소 직원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회사의 성장과 함께 직원의 월급과 복리 대우를 높여주고 그것이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애착과 기여로 되돌아오는 선순환의 조화로운 환경을 가꾸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광훈은 "회사는 매년 생산설비에 500만원을 투입해 과학기술 함량이 높은 해내외 선진설비를 인입함으로써 제품 라인이 시종 국의 선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과 선진설비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일한 힘은 바로 행동력이다." 조광훈 총경리는 이는 평생 기업에 몸 담으면서 터득해낸 성공 비결이라고 강조하면서 "나는 기업인으로서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다. 내가 가진 에너지는 100%지만 언제나 120% 이상의 에너지를 쏟으며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해왔다. 꿈이 있다면 행동하라."고 창업자들과 경영자들에 대한 소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연변범서방플라스틱유한회사에 대한 방문을 마친 경영자들은 조광훈씨가 도문시 장안진 장상촌에 건설한 한옥이 아담하게 들어앉은 '강녕마을'을 찾았다.

강녕마을은 조선족 전통가옥 11채가 들어앉은 전통가옥 펜션이다. 이 마을은 연변조선족전통가옥문화협회 회장이기도 한 조광훈씨가 10여년 전부터 기획하고 민족건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설계하고 지은 것이다.

연변대학 경영자과정총동문회 리덕봉 회장은 "오늘 방문 활동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이루며 성장해가고 있는 기업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 전통가옥의 매력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며 "앞으로 경영인들이 기업의 리념과 노하우를 배워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영화기자

상반기 황금 생산량 동기 대비 소폭 상승

2024 중국국제황금대회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상반기 우리 나라 황금 생산량은 179.634톤으로 동기 대비 0.58% 증가하고 황금 소비량은 523.753톤으로 동기 대비 5.61% 하락했다.

생산측면에서 볼 때 상반기 전국 황금 광산금 생산량은 141.496톤을 완성과 유색부산물 금 생산량은 38.138톤을 완성했다. 이외 수입 원료로 금을 72.026톤을 생산해 동기 대비 10.14% 성장했다.

료해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일부 황금광산기업과 대형 황금제련기업은 금값이 높은 기회를 틀어쥐고 생산능력 구조를 조정하고 생산구도를 최적화했는바 일부 광산의 광산금 생산량은 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오래된 광산의 채굴 용이성이 점차 감소되고 새로운 광산

은 심정건설(深井建设) 난제에 직면해있어 상반기 황금 생산량이 뚜렷하게 성장하지는 않았다.

소비측면에서 보면 황금장신구와 금괴, 금화 판매량이 분화되었다. 상반기 우리 나라 황금장신구 소비량은 270.021톤으로 동기 대비 26.68% 하락하고 금괴와 금화 소비량은 213.635톤으로 동기 대비 46.02% 성장했다. 이외 공업 및 기타 금 사용량이 40.097톤으로 동기 대비 0.53% 하락했다.

중국황금협회 부회장 겸 비서장인 장영도는 대회에서 "금값이 끊임없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파동이 비교적 커지면서 황금장신구 소비가 보다 리성적이고 신중해졌으며 황금 가공판매 기업의 생산경영 위험이 커졌기에 황금 위험 회피 기능에 의한 위험도 저하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민넷

길림구광의료기기산업단지 건설 순항

올해 4월 29일에 착공한 길림구광의료기기산업단지 대상의 주체건물인 연구개발청사 지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 대상은 2025년 9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대상 시공현장에서 노동자들은 거푸집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현장 일군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4월말에 기반시설 건설을 시작했는데 현재 연구개발청사 지붕 공사중이며 9월 중순에 사용에 투입될 예정이다.

총 투자액이 4억원인 길림구광의료기기산업단지 대상은 총 부지면적이 3만 3,000평방미터, 총 건축면적이 2만 2,000평

방미터에 달하며 주로 연구개발청사, 창고, 생산작업장, 물, 전기, 단지 내부 도로, 오수처리, 소방 저수지, 룽화 등 건설 내용이 포함된다. 단지는 2025년 9월에 모든 시공 내용을 완수할 계획이다.

이 대상이 준공되면 고약 지능화 생산라인, 고약 설비 생산라인, 표준화 지능화 지능화 생산라인, 에드를 제거 예센스 의료용 생산라인 등 4개 중점 대상이 입주한다. 생산에 투입되면 연간 생산액 7억 7,000만원을 실현하고 7,900만원의 세금액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돈화뉴스

화룡시

‘황금기’ 다잡아 대상건설 가속화

해당 부문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화룡시에 편입된 5,000만 원 이상 중점 대상은 51개로 투자총액이 240억 2,0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산업류 대상이 33개, 새로 착공한 대상이 32개에 달한다.

올해 화룡시 후속건설대상은 19개로 착공률이 100%에 달했다. 동부 이전 부화기 대상이 현재 알펜(阿尔本) 복장, 광성산업단지, 길지과학기술산업단지 실내 장식 공사를 다그치고 있고 수출 가공산업단지 대상은 공장, 기숙사, 창고 실내 장식 공사를 하고 있다. 전통식품가공산업단지 대상은 3개 작업장의 실내 장식과 부대도로를 시공하고 있고 고표준 농지 대상은 총공사 69%를 수행했다. 이외에도 스마트 물류 등

대상이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다.

2024년 화룡시에서 새로 착공한 대상은 32개인데 이중 랑수어 양식건강양생기지 대상이 다리, 댐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고 연간 생산량이 1만톤인 락식화 왕홍식품 내부 장식 및 생산라인 설치 작업을 완수했으며 흥화신에너지 충전소가 배터리리튬체소 건설을 마치고 운영에 투입됐다. 이외 콜드체인 과일남새식품가공 대상이 랑동 두리안, 옥수수 시험 생산을 시작했으며 호대취원생물의약 중간체, 장백산우방풍특산식품 심층가공, 신형전자과학기술및자동차 부품산업단지, 룽왕산삼림건강양생호텔 등 대상이 정지 작업을 펼치고 있다.

/ 연변조간

대폭 하락! 소고기 가격 ‘2자’로 시작

소고기 1인분 가격이 거의 10원으로 하락해 하락폭이 26%에 달한다. 최근 많은 소고기 샤브샤브 가게와 소고기 주점 가게들이 '가격 전쟁'을 벌여 소고기 제품 판매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료식업 매장의 소고기 요리 가격의 하락은 궁극적으로 소고기 원재료 가격 하락과 관련된다. 육류시장의 소고기 가격도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바 온라인 상가들이 다양한 소고기 판촉활동을 시작했다.

광주뿐만 아니라 할빈에서도 소고기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가 '2시대'에 진입했고 모 온라인 플랫폼 사회구역 공동구매 경로에서는 심지어 '1자로 시작'되는 우대가격이 출현했다.

소고기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수요와 공급에 있다. 공급측면에서 최근 몇년 동안 국내 소고기 생산량과 수입 소고기가 증가했는데 두 가지가 중첩되면서 시장의 소고기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 인민넷

연룡도신구, 두 회사와 협력협의 체결



성내의 상장회사 연룡도신구 조사연구 좌담회 현장



연룡도신구관리위원회와 장춘시비산문화방송유한회사 협력 체결

1일, 연룡도신구관리위원회, 상해증권보, 길림성환경관리업총협회에서 주관한 상장회사 길림행 연룡도신구 조사연구 행사가 룽정시 성수통산국제건강양생신성에서 열렸다.

연룡도신구는 연변에서 유일하게 의료미용, 건강양생, 문화관광 3대 중점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시범구'이다. '의료미용으로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교류, 좌담회, 조사연구를 통해 연룡도신구의 의료미용, 건강양생, 문화관광 분야를 일층 발전시켜 연변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일조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이번 행사에는 연룡도신구의 발전을 위해 20여명의 성내의 상장회사와 유명 기업 대표들이 참가했다.

좌담회에서 연룡도신구관리위원회 주임 김봉은 연길국제의료미용타운 발전 계획과 산업 배치를 소개했다. 그는 연룡도신구는 '의료 선도, 제조 지원, 3 산업 융합'의 발전 지향점에 따라 '1+3+ x'의 총체적인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의료, 건강, 관광,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의료미용산업 집결지를 건설하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대표들과 연룡도신구

관련 책임자들이 의료미용, 건강양생, 문화관광 산업의 협력 모식, 전형 승격, 미래 발전 추세 등을 둘러싸고 깊이있는 교류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연룡도신구관리위원회는 각기 회미국제의료그룹(중국), 장춘시비산문화방송유한회사와 협력기틀 협의를 체결하여 연룡도신구의 의료미용, 건강양생,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좌담회가 끝난 후 조사연구단은 연길국제의료미용타운에 가서 현지 고찰을 진행하고 총체적 계획, 대상 건설 진척 및 미래 전망을 상세하게 료해했다. 기업 대표들은 연룡도신

구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앞으로 기술 연구개발, 시장 개척, 인재 양성 등 방면에서 더욱 많은 지원을 할 것이며 공동으로 연룡도신구의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길 희망했다.

이번 행사에는 연룡도신구당사업위원회 서기 강휘, 연룡도신구관리위원회 부주임 섭효동, 연룡도신구당사업위원회 부서기 한박문이 참가했다. 상해증권보 총경리보조 호의위, 길림성환경정리업총협회 회장 원복원이 행사에 참가해 축사를 했다.

/ 김영화기자 / 사진 리군광